고양시 中企 융자지원 20억 추가… 총 29억

비제조업 분야로 확대 실시

고양시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 19) 여파로 위축된 기업들의 경영환경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중소기업 운전자금 융자지원 사업'을 당초 9억 원에서 20억 원을 추가 편성하여 올 한해 총 29억 원의 이자 지원 사업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이 사업은 경영에 애로를 겪고 있는 기업이 금융권의 융자 제도를 원활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은행 대출 금리 1~3%를 시에서 지원하며, 제조업·지식기반산업·문화산업 분야의 중소기업이 지원 대상으로 향후 5년간 이자가 지원된다.

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기업은 고양시청 홈페이지 기업지원 게시판에서 공고 확인 후, 신청서 등 해당 서류를 시 기업지원과와 협약은행에 제출하면 된다.

한편 고양시에서는 중소기업 특례보증 대상을 기존 제조업 분야에서 비제조업 분야로 확대하여 무보증으로 융자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하였으며, 올해의 경우 보증 여유액을 100억여 원 확보한 바 있다.

시 관계자는 "중소기업에 대한 이자지원 사업은 기업들의 관심도가 높아 지원율이 높을 것"으로 예상했으며, "이자지원과 더불어 특례보증 확대는 가뜩이나 어려운 기업경영환경 개선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고양(경기)=안성기 기자 ask9990@

안동시 행복택시, 洞 넘어 오지마을까지 운행

거리제한 1km 이상 마을로 완화

안동시 행복택시 /안동시

안동시는 올해도 행복택시 운행을 더욱 확대해 시민 곁으로 더 가까이 달려가겠다고 11일 밝혔다.

안동시가 운영 중인 행복택시는 오·벽지 마을 주민들의 이동권 보장과 교통복지 증진을 위해 지난 2017년부터 도입된 제도이다.

지난해 연말까지 10개 읍·면 73개 마을로 확대 운행했으며, 이용 주민이 연간 2만 명이 넘을 정도로 주민들의 큰 호응을 얻고 있다. 이에 시는 올해 행복택시 수혜지역을 더욱 확대하기 위해 관련 조례 및 규칙을 개정해 읍·면은 물론 동(洞) 지역 오지마을까지 운행하고, 거리 제한 또한 현행 버스승강장으로부터 1.5km 이상에서 1km 이상 마을로 완화해 대중교통 소외지역 주민들의 교통복지 향상에 더욱 힘써 나갈 예정이다.

/안동(경기)=문봉현 기자

장성군, 코로나19 피해 농업인 금융 지원

전남 장성군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 농업인을 위한 금융지원 대책을 시행한다.

장성군은 경영난 해소를 위해 농어민 소득지원 기금을 융자 받은 농업인과 농업법인을 대상으로 융자금과 이자 상환을 1년 간 유예한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조치로 올해 상환기일이 도래한 농가 13곳이 상환 유예 혜택을 받게 됐다. 유예 대상자로 확정된 농가와 법인은 오는 27일까지 농협중앙회 장성군지부에 신청서를 접수해야 한다.

농업인의 소득안정을 위해 장성군이 지원 중인 농어민 소득지원 기금은 연리 1%에 최대 1억원까지 융자·지원한다. 올해 사업비 지원을 희망하는 농업인은 오는 31일까지 주소지 행정복지센터로 신청하면 된다.

장성군은 금융지원 외에도 전국 롯데슈퍼 450개 매장에서 열린 장성사과 판매행사를 지원한데 이어 농가 농산물 택배비 지원, 화훼농가 꽃사주기 운동 등을 펼치고 있다.

/전남=김태수 기자 ts708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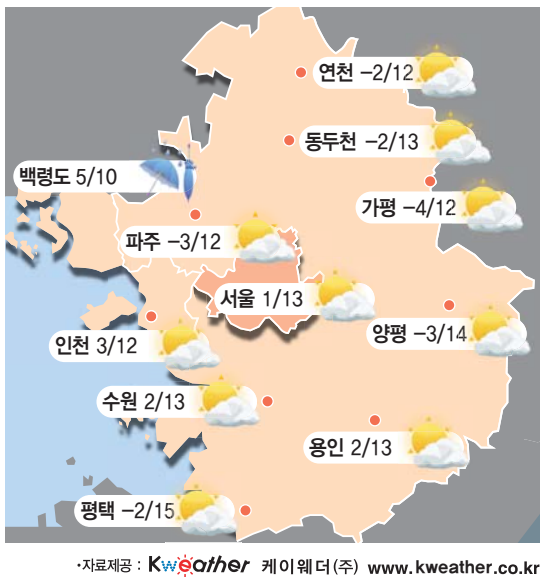
오늘의 날씨

해뜸 / 06:48 | 해짐 / 18:36

3월 12일(木)
음력 : 2월 18일

수도권 날씨 1 ~ 13℃

운동 지수
빨래 지수
세차 지수
외출 지수



·자료제공 : Kweather 케이웨더(주) www.kweather.co.kr

국가의 관문에 마스크가 없다

〈인천공항〉

마스크지급, 주 5개서 4개로 줄어
KF94, KF80 아닌 일반 마스크
공항근무자들에 우선보급 필요

#.인천공항 제2여객터미널에서 보안 협력업체에 근무하는 A씨는 여객터미널에 들어가는 것이 두렵다. 2차 보안검색을 담당하고 있어 기내로 탑승하는 승객을 한번 더 검색해야 하는데 회사에서는 마스크가 떨어져 지급받지 못해서다. A씨는 어쩔 수 없이 소독제를 뿌려 마스크를 재활용하고 있다.

인천공항 제1여객터미널에서 공항근무자들이 마스크를 쓰고 근무하고 있다. 공항 입점업체나 협력업체는 기존에 확보한 마스크가 소진되었지만 공적판매로 더 이상 많은 양의 마스크를 구매할 수 없게됐다. 인천공항 근무자들에게는 필수인 마스크를 지급하지 못해 입점업체와 협력업체 관계자들의 애를 태우고 있다.

인천공항 여객터미널 등 공항내에 시설관리를 하고 있는 인천국제공항공사 자회사 인천공항시설관리 직원들도 1주일에 5개씩 지급받던 마스크를 4개씩 지급받고 있다. 이마저도 조만간 떨어지면 지급이 중단되게 된다. 농림축산검역본부 검역원들은 제1, 제2여객터미널에서 근무하는 검역원에 한해 마스크를 지급하고 있으나 KF94나 KF80 제품이 아닌 일반 마스크다.

11일 정부기관 관계자에 따르면 공무원들은 일반마스크 착용을 권하는 지침이 내려왔다고 한다.

신종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감염 우려로 개인위생이 강조되는 가운데 마스크를 사려는 국민들이 몰리면서 마스크대란이 일자 최근 정부에서는 마스크 제작물량의 80%를 공적마스크로 지정해 공적판매처에서 판매하고 있다. 지난 9일부터는 요일별 마스크 구매 5부제를 시행하고 있다. 하지만 획일적인 정책으로 정작 필요한 곳에서는 구할 수 없는 상황이 되어 불만이 많다.

인천공항 보안경비업체의 한 대표는 최근 '국민신문고'에 민원을 넣었다. 그는 "국가의 관문에서 불특정 다수 내외국인 여행객을 맞아야 하는 환경에 있는 근무자들이 정작 마스크를 구하지 못해 일을 할 수 없는 상황"이라며 "정부에서는 획일적인 정책이 아니라 병원이나 공항, 항만 등 바이러스 감염 우려가 높은 지역에는 업무가 마비되지 않도록 배려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관세청은 지난주 최근 불법으로 해외반출을 시도하다 적발 단속된 마스크 몰수품을 한국사회복지협의회를 통해 4만1천장의 마스크를 기탁 취약계층에 무상지급 했다. 인천세관 관계자는 "불법 반출로 적발된 몰수품 마스크를 2차로 사회취약계층에 전달을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인천취재본부=김창근기자 mirex@metroseoul.co.kr

경북도, 임대료 50% 한시적 감면

16개 기관, 385개 입주기업 등
5월까지 코로나19 피해 지원
월 2억400만원 지원 효과 기대

경북도 슬로건

경북도가 최근 민간에서 불고 있는 착한 임대료 열풍에 적극 동참한다고 11일 밝혔다.

경북도는 도 출자·출연 등 유관기관과 협력해 이들 기관에 입주해 있는 업체에 대해 건물 사용 임대료를 오는 3월부터 5월까지 2~3개월간 한시적으로 50% 감면한다. 도는 이번 조치에 따라 도 산하 출자 · 출연 등 총16개 유관기관 385개 입주업체에 월 2억 400만원의 지원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보고 있다.

혜택을 받는 입주업체 대부분은 이번 코로나19로 기업활동과 소비가위축되면서 매출에 직접적인 타격을 입은 중소 벤처기업과 소상공인으로 당장 임대료 납부의 부담을 안고 있는 상황이다.

특히, 경북테크노파크(90개업체, 월 37백만원), 포항테크노파크(57개업체, 월51백만원), 구미전자정보기술원(129개업체, 월49백만원) 등 도내 과학기술분야 연구기관이 적극 동참해 5G, AI, 전자, 바이오, 의료기기 등 다양한 분야 중소벤처기업의 어려움을 극복하는 데 동참하고 있다.

현재 경북도는 주력산업인 전자와 철강을 넘어서는 미래먹거리 발굴을 위해 5G 테스트 베드 구축, 홀로그램 기술개발사업, 바이오 신약개발 등 지역의 과학산업 육성사업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

도는 이번 임대료 감면을 계기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피해를 입은 지역기업을 위해 지역의 산학협력단과 연계해 대학의 장비사용 및 연구 지원 요청 시 중소기업의 장비시설 사용료를 무료 또는 감액하는 방안을 추진하는 등 코로나 극복을 위한 다양한 조치들을 관계기관과 협력해 적극 추진하고 있다.

이 밖에도 (재)문화엑스포, 경북도 문화관광공사, 경북경제진흥원, 경북도 교통문화연수원 등 도정 각 분야에서 많은 기관들이 입주업체의 임대료 감면에 적극 나서 코로나 피해를 입은 지역기업에게도 큰 힘이 되고 있다.

/경북=문봉현 기자 newsmun@

상주시, 코호트 격리시설 감염예방 총력지원

29개소에 생필품·소독용품 등 지원
15번째 확진자 이후 추가 환자 없어

천봉산 요양시설 예방적 코오트 격리중

상주시가 예방적 코호트 격리에 들어간 노인요양원 등 집단시설의 감염 확산 방지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다중 수용시설에서 감염자가 발생할 경우 안정적으로 관리되고 있는 신종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상황이 악화될 수 있기 때문이다. 예방적 코호트 격리는 환자가 발생하지 않았지만 노인 등 취약계층이 밀집한 시설을 미리 격리해 감염을 막는 조치다. 상주시의 경우 3월 3일 15번째 확진자가 나온 이후 8일째 추가 환자가 없는 상태다.

상주시에는 상주보림원·천봉산요양원 등 노인요양시설과 장애인시설 등 29개소에 종사자 569명, 입소자 972명이 예방적 코호트 격리 중이다. 기간은 22일까지 2주간이며 종사자와 입소자 모두 외부 출입이 금지되고 있다.

상주시는 대상자들이 격리 기간을 무사히 넘길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 방안을 마련해 시행하고 있다.

/상주(경북)=김홍기 기자 gi2136@